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내겠다'는 다짐으로
한걸음 더 앞을 향해
2018,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SeAH

세아가조

세아가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2018 JAN / FEB

2018 JAN / FEB

Vol. 373

꿈 + 의지 = 자신감

SECTION 1

희망 더하기

- 04 - 07 **스페셜 인터뷰**
이순형 회장 신년사
- 08 - 09 **테마 토크**
무술년, 개띠 세아인들의 새해 다짐
- 10 - 13 **테마 스토리**
할 수 있다고 믿는 힘, 자신감
- 14 - 21 **세아 포커스**
2018 세아그룹 신년회의
세아의 신입 임원을 소개합니다
2018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 22 - 25 **세아 뮤지엄**
세아의 캠페인
- 26 - 29 **글로벌 리포트**
SeAH Steel America

SECTION 2

마음 나누기

- 30 - 33 **팀플레이**
세아베스틸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 TF팀
- 34 - 37 **철의 장인**
세아창원특수강 2제강팀 한정철 주임
- 38 - 41 **세아 로드**
전남 여수
- 42 - 45 **원데이 클래스**
다도체험
- 46 - 47 **헬스케어**
허리 운동
- 48 - 49 **세아 뉴스**
- 50 - 51 **사우동정 / 독자엽서**



COVER STORY

가까이 들여다보거나 멀리서 지그시 바라보면
매일 만나는 익숙한 풍경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의 풍경도 그렇지요.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섬 없이 움직이는 설비들의 생동감이나
다양한 색채들이 한 편의 회화처럼 다가옵니다.

이번 호 세아가족은
세아창원특수강 KOCKS 설비의 모습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냉간압연 과정을 거치며 단단한 봉강 제품이 만들어지듯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를 향해 쪽쪽 뻗어나가는 힘,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2018년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발행일 2018년 2월 22일(통권 373호)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 733 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 464 6161 **사진** B.A.M Studio 02 548 1026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패기로

또 하나의 성공을 쟁취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이순형 회장 신년사

지난 한 해에도 성과를 도출하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구어낸 업적은 세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동력으로써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도전하여 세아가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선진기업으로

발돋움해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아의 행보에 대한 간단한 평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대미 강관 수출 증가와 철강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과거 몇 년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3년 만에 침체국면을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이라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철강산업군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아시다시피 전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성취를 뒤로하고 이제 또다시 힘겨운 도전적 과제들을 안고서 생존과 성장을 향해 내딛는 새해의 발걸음이 꽤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경제 논객들의 진단이 있지만 경제 회복세를 이끄는 주체는 소비 및 서비스업, 자산가격의 반등 등이고, 그에 반해 투자나 전통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각국 정부가 투자 확대보다는 내수활성화와 고용여건 개선에 집중할 것이기에 전통 제조업 특히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세가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위협 요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가 얼마나 큰 강도로 내려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특히 세아제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강관 수출 전선에 커다란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물량이 여타 시장으로 쏟아져나와 가격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엮힌 데 뉘친 격으로 국내 기업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영환경들은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을 다시금 심각하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이 가격 뿐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생존을 크게 위협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효율 생산설비의 폐쇄와 신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고 있고, 기술발전 속도도 예상외로 빨라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하향 조정 또는 폐지한다고 하니 질적 고도화까지 겸비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은 세계 철강업계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고민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극복하고 타개해나갈 해법을 각 사가 신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전적인 2018년을 맞이하며 세아인들이 꼭 짚고가야 할 사항을 꼽으신다면,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경영환경이 악화되어가는 격변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질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 회사는 조직 간에 소통 및 협업이 잘되고 있는가. 둘째, 경쟁사 대비 탁월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고 자신하는가. 셋째, 남보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앞선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넷째, 생산 설비는 철저한 예방 정비와 함께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회사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가입니다.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대답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전진해가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조금만 소홀히 하거나 느슨해지면 금방 뒤쳐질 수 있습니다.

현 시장환경에서 세아의 성장을 위해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거론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각 사가 이미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거나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에 속도와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마음 자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네 가지 행동 방안을 세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점진적 개선보다는 획기적인 혁신으로,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당장 시행함으로써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헝그리 투혼 정신'입니다. 매사에 투혼 정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봐야 하는 강인한 의지력과 실천력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시장 쟁탈이나 생

새해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패기를 지니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또 하나의 성공을 쟁취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산성 항상 기술 개발 노력 등에 절실히 요구되는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목표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목표를 허황되게 높이 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10%에 만족하지 말고 100%를 목표로 하라. 10%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10배 크게 목표한다고 해서 10배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접근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개선할 점은 없을까'를 틈틈이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야나기 다다시 회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끝없이 자문해야 진보와 성장이 있다. 과거에 성취한 작은 성공에 안주한다면 거기서 끝나고 만다' 또한, 옛날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의문이 많으면 많이 나아가고, 의문이 적으면 적게 나아간다. 그리고 아무 의문이 없

으면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식과 마음 자세가 세아를 이끄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속에 체화되어 자리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고난 없이 상황을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끝으로 세아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패기를 지니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또 하나의 성공을 쟁취하는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 사회에서는 강인한 철강인, 불굴의 세아인으로 금년 내내 활기찬 모습 지켜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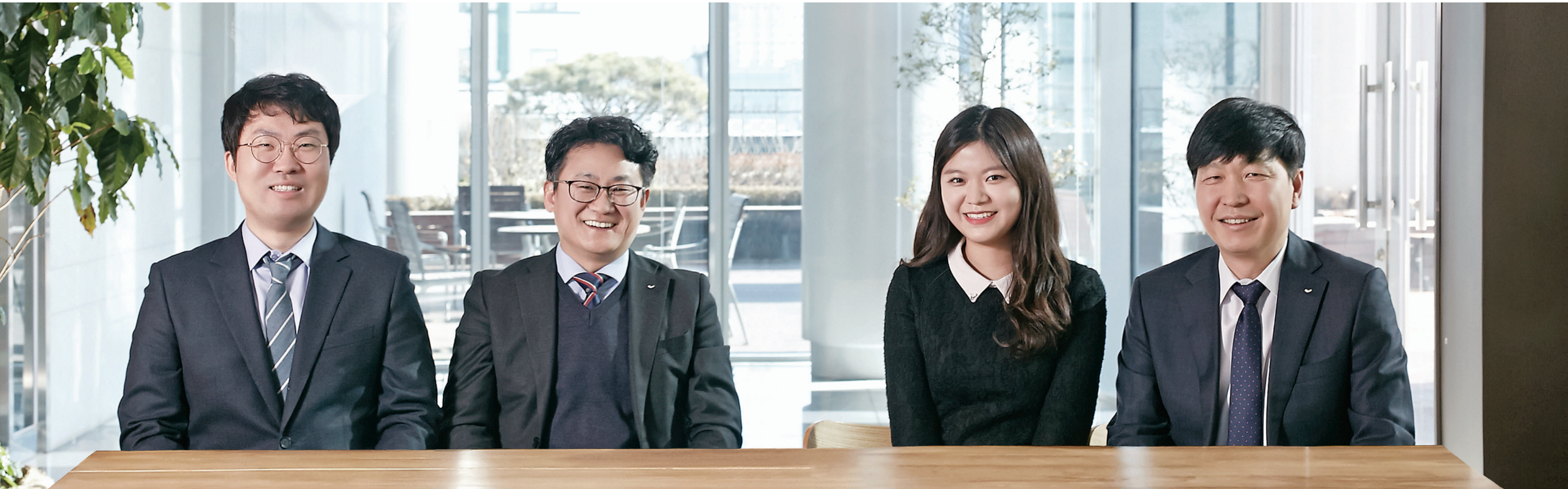
2018년 새해 아침
회장 이순형

이순형

올해는 우리가 주인공

무술년, 개띠 세아인들의 새해 다짐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개의 이미지는 ‘충직’이죠. 책임감이 뛰어나고 헌신적인 동물인 개는 한 번 문 것은 놓지 않는 끈질김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를 남다른 마음으로 맞이한 4명의 개띠 세아인을 만나봅니다.



1982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요

세아 FS 경영관리팀 최윤혁 대리

새해 첫날, 아이와 함께 제주도 일출을 보고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마다 한 번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해요.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새롭고, 넓은 시각을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새해 소망 역시 아이의 건강입니다. 둘째도 갖고 싶어요. 업무적으로는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파트 담당자로서 원가절감 및 회사의 성장에 일조하는 세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1970

초연결 시대 혁신의 선봉에 서다

세아네트웍스 SI팀 오명훈 부장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초연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초연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세아네트웍스 SI팀의 업무죠. 우리 회사의 이름처럼 그룹의 가치를 연결시키며, 대외사업 분야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해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간 진행해온 가족 독서토론 모임을 올해도 열심히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를 맡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힐링을 통해 마음 건강도 돌볼 계획입니다.

1994

밝은 기운으로 2018년도 파이팅!

세아 L&S 재경기획팀 엄정선 사원

강아지는 애완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잖아요. 작년 3월 말에 입사한 새내기로서, 저도 올해 많은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총무 업무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고, 필라테스도 배워보고 싶어요. 선배분들이 ‘취미활동을 병행해야 회사 업무도 잘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일과 취미의 균형을 통해 룽런하는 세아인이 되겠습니다.

1970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전

세아제강 판매기획팀 박근철 차장

작년 10월, 판매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케팅파트 리더로서 새로 맡은 업무에 잘 적응하여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해 목표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아 걱정도 많고 부담도 큼니다. 하지만 세아제강에 입사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어깨 부상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가 지난해 말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 회복 중이라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있네요. 하루속히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싶고,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CONFIDENCE

#1 : 자신감

할 수 있다고 믿는 힘 :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 헤쳐나가기라는 굳건한 자기 확신을 뜻한다. 살얼음판 같은 기업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신감이 꼭 필요하다.

자신감과 여행 가방 크기의 상관관계

우연히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그 나라의 언어도 익숙하지 않다. 이럴 때 당신은 가방에 무엇을 넣어갈 것인가? 여행에 대해서 긴장감이 높고 두려움이 클수록 가방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들은 많아진다. 칫솔과 치약부터 두꺼운 겨울 코트까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가방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반면에 해외여행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넣어간다. 무엇이 필요한지 대충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건 현지에서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감의 크기이다.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이라는 두려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 낮은 자신감은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때문에 시작을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가방은 점점 무거워진다.

자신감은 잠재력을 실력으로 바꾼다

직장생활에서 자신감은 기술과 지식만큼 중요하다. 기술은 있으나 자신감이 부족해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이나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감으로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다. 자신감 없는 능력은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에 그칠 확률이 높다. 잠재력이 언제까지나 잠재력으로 머무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만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극이다. 자신감은 촉매와 같은 것으로, 자신감이 있다고 무조건 잠재력을 발휘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신을 믿으면 표류하지 않는다

자신감에 찬 사람은 변화를 즐긴다. 변화를 견뎌낼 힘과 성공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믿는다. 또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운 업무도 위험이 아닌 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이 잘못될 때 이를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고, 실패해도 결코 표류하지 않는다. 반면 스스로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과 도전을 피해간다. 좌절을 맛보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목표를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을 믿기보다 실패했을 때 벌어질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지대에 머물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다.

자신감에 찬 사람은 변화를 즐긴다.
변화를 견뎌낼 힘과 성공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믿는다.

자신감의 근력 강화는 평소부터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정이 넘치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모두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좌절을 겪으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차츰 작아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의 시작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보다는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원래 있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을 하다 보면 주춤하거나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 일도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큰 부담을 느껴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능력을 갖추려면 평소부터 자신감의 근력을 키워두어야 한다.

경험의 축적이 곧 자신감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다. 아무리 오래 전에 해본 일이라도 몇 번 다시 해보면 예전 실력이 금세 돌아오는 법이다.

경험은 자신감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는 무언가에 능숙해지고 나면, 잠시 저조한 때가 있을지 언정 본래 실력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을 반복하는 게 쉬워진다.

의혹의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하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서투르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거기서 그만두면 절대 능력을 익힐 수 없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에 익숙해지려면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믿는다

직장인들에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존과는 다른 일에 도전하는 기회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난 결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 너무 두려워. 차라리 지금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를 부정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잃게 된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에게 누가 그를 믿고 도움을 줄 것이며 조언을 해주려고 하겠는가?

스스로 닭이라고 믿는 독수리는 닭의 삶을 산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신감 강화를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에서 좋은 점을 먼저 보려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에서 실수보다는 성과에, 일보후퇴보다는 반보전진에 의미를 두는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한다.

순조로운 삶에서 아주 멋진 삶으로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Richard Bach)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승리자가 된다'고 말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도전을 시련이 아닌 모험으로, 고난을 회피가 아닌 배움의 원천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지평은 더없이 넓어질 것이다. 자신감을 조금만 더 키우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고, 순조로운 인생 너머 아주 멋진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면 말이다.

■ 참고 서적 : 로버트 앤서니 <기적의 자신감 수업>



승리의 한 해를 향한 모두의 열망 2018 세아그룹 신년회의

새해가 밝았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발군의 성과를 일군 지난해를 뒤로하고, 더 큰 도약과 변화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세아의 각 사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M 10:30 시작

1월 8일,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 모인 세아의 각 사 임원들이 반가운 인사와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다. 오가는 이야기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들의 표정에 기대와 희망이 서려있다. “2018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무술년 ‘황금 개’의 해에는 함께하는 이들과

더욱 친밀하고, 어려움 앞에선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아홀딩스 서영범 대표가 새해 인사로 신년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철의 소리’를 주제로 오프닝 영상이 상영됐다. 공장의 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는 소리, 신발 끈을 단단히 조이는 소리, 설비 가동 스위

치를 올리는 소리, 거대한 기계 설비가 움직이는 소리 등 뜨거운 쇳물이 철강 제품으로 탄생하는 공장의 다양한 소리들이 회의장 가득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현장의 소리는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 세아인들에게 ‘웁다고 믿는다면 철과 같은 마음으로 곳곳이 걸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AM 10:45 영광

30년 근속 임원에 대한 포상, 2017년 세아업적상 및 세아경영상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순형 회장은 세아제강 김석일 상무, 세아베스틸 권철호 상무와 소진왕 이사, 세아창원특수강 조오영 상무와 박순근 이사에게 30년 근속을 치하하는 의미로 행운의 황금 열쇠를 수여하고,

투철한 사명 의식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아업적상은 기술개발, 생산, 영업, 혁신, 특별공로 5개 부문에서 발군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준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했다. 2017년도에는 8개사에서 총 15건의 공적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기술개발, 생산, 영업, 혁신 부문에서 금상 3팀, 은상 5팀, 특별상 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아업적상 금상은 영업부문, 생산부문, 혁신부문에서 선정됐다. 먼저 영업부문에는 북미 강관 수출을 이끌어 역대 최대 판매량 및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한 세아제강 김정옥 부장 외 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생산부문에는 공구강평강 제조공정 최적화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킨 세아창원특수강 박봉준 부장 외 9명이, 혁신부문에는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을 실현한 세아베스틸 송강 부장 외 11명이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이들을 포함해 이날 세아업적상을 수상한 총 9팀에는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전달됐다.

경쟁력, 미래성장, 경영혁신, 인재육성 총 4개 부문에서 우수한 경영 활동을 보여준 회사에 수여하는 세아경영상 시상도 이어졌다. 2017년에는 경쟁력부문에서 세아제강, SeAH Steel America 2개사가 수상 회사로 선정되어 트로피와 순금배지를 받았다.

“세아제강의 모든 임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발판을 만들어줬던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아제강 이회령 부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내년에도 세아경영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M 11:05 임명

세아제강 이상호 이사보, 세아베스틸 김동혁 이사보 등 올해는 총 14명이 신임 임원으로 임명됐다. 세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기념품이 전달됐다. 특히 이날 신년회의에서는 신임 임원 가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함께 헌신해온 가족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경영진들은 세아인들이 지난 한 해 만들어낸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올해의 과제와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M 11:30 다짐

“새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면 된다. 한다면 한다’는 자신감으로 또 하나의 성공을 쟁취하는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이날 이순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영환경이 악화되어가는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마음 자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변화의 속도와 목표 수준을 높이고 투혼 정신을 발휘하며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년회의를 마친 경영진들은 세아카페로 장소를 바꿔 오찬식을 가졌다. 세아제강 이회령 부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항상 잘하는 것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미식축구계의 전설적인 코치, 빈스 롬바디(Vince Lombardi)의 말을 인용하며 ‘세아의 전 계열사가 올해 모두 위닝 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경영진들은 이회령 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세아만세’를 외치며 2018년 세아가 펼쳐 나갈 더 큰 꿈과 도전의 뜻을 함께했다.



새 출발 새 각오

세아의 신임 임원을 소개합니다

올해 신년회의에서는 14명의 신임 임원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세아를 기원하며 각 사 신임 임원들이
새 출발의 메시지와 새해 각오를 전합니다.

‘도전은 미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임원,
미래 세아의 초석 역할을 할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아베스틸 윤찬식 이사



신입사원 때의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으로
세아의 백년대계에 초석이 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 세아특수강 서태복 이사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강점은
더욱 극대화하여 포항공장만의
차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 끊임없는 문제의식과
개선 실행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 세아제강 이희대 이사



제 새해 다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인
‘우문현답’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 세아베스틸 김동혁 이사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나겠습니다.
생산 제품의 획기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회사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 세아창원특수강 이응수 이사



순천공장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수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순천공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세아제강 이상호 이사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여
10년 후 입사하는 후배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 세아 M&S 김경수 이사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 있는 차별화를 통해
내수시장 수성을 위한 영업 지원을
극대화하는 공장으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 세아특수강 이종탁 이사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선점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세아 FS 김정민 이사



‘소통과 협업, 전체 최적화,
완결형 업무수행’을 통해 선진공정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 직원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 없는 공정연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아창원특수강 박진만 이사



세아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타이 세아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TSW(Tube Single Wall)
생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아 FS 박치영 이사



2018년 저의 모토는
‘처음처럼’입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매사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
회사의 지속 성장에 일조하겠습니다.

- 세아 ESAB 하희석 이사



경청을 통하여
정직, 열정,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 세아 ESAB 이진오 이사



여러 사람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밝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세아메탈을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 세아메탈 주형백 이사



세아의 미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2018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지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소재의 곤지암밸리에서 2018년 세아 신입사원들의 입문교육이 진행됐다.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패기 넘치는 교육 현장을 들여다본다.



세아의 가치와

조직문화 체득에 초점

세아제강 2명, 세아베스틸 12명, 세아 FS 1명, 세아 L&S 3명 등 총 4개사에서 모인 18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그룹 입문 교육이 실시되었다. 신입사원들은 8박 10일간의 합숙 교육을 통해

세아의 핵심가치와 조직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세아 50년사 도서 학습과 세아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The Sound of SeAH 등 세아의 역사와 핵심가치, 준법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신입사원들은 'What is

Different' 시간에 카드 플레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행동 유형 및 상황별 소통 방법 등을 익혔으며, 비즈니스 매너, 기업의 본질과 역할,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 직장생활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기와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올바른 직업의식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선배들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

신입사원들을 향한 선배들의 따뜻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업 선배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인 관계 비결,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언을 전했다.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세아 제강 김용훈 대리, 세아베스틸 권태영 과장, 세아창원특수강 김성호 과장 등 그룹 핵심 인력으로 양성된 챌린지 리더들을 초빙해 직장 생활의 노하우와 갈등상황 극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된 세아사랑 시간에는 세아제강 백규한 이사와 세아베스틸 이승재 이사가 자신들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가치, 업무 수행 시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1월 25일에는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신입사원들과 만났다.

“철든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누군가 치울 거라 생각하고 어지르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마무리하고 문단속을 하는 사람, 한 수 앞이 아니라 두 수 앞,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이휘령 부회장은 CEO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입사원들에게 ‘애사심이 절로 우러날만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협업을 배운다

“각 조별로 젓가락 투석기를 만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아베스틸 공정연구센터 장지훈 사원은 이번 교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문제해결 프로세스 과정을 꼽았다. 각 조별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한다. 세아제강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정민수 사원도 이번 교육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협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세아 FS 마케팅팀 유재영 사원은 ‘The Sound of SeAH’ 프로그램을 통해 사가(社歌)에 담긴 세아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고, 혼자서는 부끄럽고 어려운 일도 여럿이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세아 L&S 철근영업팀 김유경 사원은 ‘세아 L&S가 그룹의 주축이 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교육 과정 종료 후, 현업 부서에 배치된 18명의 신입사원들. 이들 모두가 ‘프로’가 되겠다는 목표와 자신감을 갖고 소중한 세아인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해본다.



새해를 계획하는 연초. 우리는 새 다이어리를 펼치며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마음 먹었던 희망의 다짐들은
옛 사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58년 세아의 옛 사보를 들여다보면
그 굳은 다짐과 단단한 결의들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모든 역사는 다짐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아의 역사 또한
오늘의 다짐에서 출발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온 세아인 모두의 다짐 세아의 캠페인

세아의 사보에는 내일로 이어지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아인 모두가 꿈꾸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다짐과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열어온 세아.
그 발자취를 옛 사보를 통해 확인해봅니다.



경영합리화 운동 추진

부산파이프는 전 사원의 의식개혁과 창의적인 사품을 확립 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하고자 1989년 9월 21일 경영합리화추진본부를 발족함으로써 전사적 경영합 리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1992년 말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된 경영합리화추진본부는 사원 전체가 변해 야 한다는 인식아래 'New Change(새로운 변화)'를 행동 지표로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4년 동안 부산파이프 임직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급속 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의지 를 가지고 합리화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경영합리화 운동을 통해 부산파이프는 원가절감, 인력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1990년 1월 사보 고정관념과 악습을 타파하고 혁신하여 회사 를 초우량회사로 만들자는 의미가 담긴 New Change 심볼 마크 를 비롯하여 정리 정돈의 생활화, 문제 제기 등 10가지 개선의 기 본정신의 내용을 사보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공장합리화 운동 전개

공장합리화의 추진 배경은 고품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과 낮은 인건비로 저가 공세를 하고 설비 확충에 매진 하고 있는 후발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절실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를 거듭할수록 늘 어나는 원가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장합리 화 사업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파이프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설비와 공정개신 을 양축으로 한 공장합리화 작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포항 제 1공장은 1990년 초부터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합리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동화 및 컨베이어 시 스템을 도입하여 공정의 흐름 생산을 유도한 결과, 재공품 의 감소와 불필요한 이송작업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 습니다.

1991년 10월 사보 공장합리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S.O.S (Swift, On-Time, Simple) 운동에 대한 캠페인 내용이 수록되 었습니다. 보유 문서 줄이기, 파일링, 정 위치 생활화, 내 기계 운동 을 골자로 한 S.O.S 운동의 확산을 위한 일러스트도 함께 제작되 었습니다.



고객 중심 품질경영체제 선포

부산파이프는 향후 예측되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판매 애로 를 해소하고, 경쟁사 대비 확고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납기, 품질, 소요량, 다양성 등 고객의 구매요구 조건 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비가역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1993년 부산파이프는 '고객 중심의 품 질경영체제 확립'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영 혁신 차원에서 펼쳐진 고 객 중심의 품질경영은 “모든 것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하고, 문제 해결책도 고객이 갖고 있다”는 혁신 마인드로 품질경 영과 고객만족의 접합을 찾는 ‘QM(Quality Management)’ 실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QM은 기술 혁신, 품질 향상, 원 가절감 등을 동시에 추구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철 저한 고객지향의 품질향상 운동이었습니다.

1993년 5월 사보 고객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품질 및 납기 준수 등 비가역적인 경쟁에서도 한발 앞서간다는 신념을 실천한 부산파이프, 구성원 모두가 고객만족을 향해 한 배를 타고 나아간 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사보에 소개하며 품질에 대한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

구성원의 올바른 의식 확립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그 기업이 가진 기업문화에서 비롯됩니 다. 기업문화란 한 기업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및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념과 관습, 전통과 규범, 지식과 기 술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기업을 방산에 비유 해본다면 기업문화는 수면 밑에서 경영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방산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업 의 성패는 그러한 기업문화를 구성원 개개인이 얼마나 내재화 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부산파이프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구성 원들의 가치관과 신념, 의식구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문화 의 중요성에 일찍부터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를 통해 구 성원 모두가 성숙한 기업인의 의식을 확립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1990년 3월 / 1996년 3월 / 1997년 1월 사보 ‘의식개혁 캠페인’은 1990~1991년까지 부산파이프 사보의 고정 코너로 책임감, 협동과 단 결, 개척정신 등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소양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1996년 사보의 ‘울림터’, 1997년 사보의 ‘해지는 거리에서’ 역시 행복 한 일터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위기를 정면돌파하는 자신감과 의지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비상을 꿈꿉니다

SeAH Steel America

글 : SeAH Steel America 전우현 과장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SeAH Steel America(이하 SSA)는 올해 법인 설립 40주년을 맞이했다.
SSA의 다양한 현지 이야기를 스테인리스팀 전우현 과장이 전해왔다.

📍 Dana Point, California, USA





SSA Irvine office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땅

안녕하세요. 저는 SSA Irvine office 스테인리스팀에서 근무 중인 전우현 과장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계획도시 중 하나인 어바인(Irvine) 시(市)이며, LA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오렌지카운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문화 다양성'을 대표하는 주(州)로 꼽히며, 어바인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급성장하는 도시답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바인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쓰는 언어만해도 총 72개국어에 이른다고 합니다.

멕시코 요리를 맛보고 돌고래와 조우하는 곳

세계 그 어느 해변보다 하얀 백사장과 파란 바다 그리고 분주히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의 해변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로 유명한 진헌팅턴 비치를 추천합니다. 또한, 다나 포인트에서 고래 관람

크루즈를 타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돌고래 떼와 흑등고래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멕시코의 영토였던 캘리포니아에는 지금도 여전히 멕시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음식 역시 멕시코 푸드가 많습니다. 포르피야에 콩과 고기를 얹어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후 소스를 발라 먹는 부리또, 포르피야 사이에 고기·해산물·치즈 등을 넣어서 구운 엔칠라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던 것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트럼프 정부가 2017년 4월 20일 대통령 직권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산 제품이 여러모로 유리한 입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는 연방상무부가 미국 국가 안보에 철강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조만간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 SSA Irvine / 아래) SSA Houston



위) SSA Toronto Canada / 아래) SSA 이병준 회장

그러나 위기는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제품을 겨냥한 미국 경쟁사들의 위협은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SSA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본사와 머리를 맞대며 차분하게 위기에 대처해왔습니다. 낯선 미국땅에서 세아를 알리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SSA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과 의지를 마음에 새기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 이후 최대 판매량 달성

지난해 SSA는 2014년 이후 최대 판매량을 달성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본사 및 계열사 공장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지원 덕분이며, 고객사의 뿌리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직원 마음속에 깊이 녹아든 이병준 회장님의 경영철학과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 구성원의 치열한 노력이 이 같은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SSA는 직거래 비중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신규 고객을 발굴하며 우호 고객 확충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영업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난해 SSA는 세아제강의 미국 내 신규 생산 거점 확대에도 투자 단계부터 참여하였습니다. 가격 경쟁력, 현지 판매시장 반응 예측 등 다방면으로 본사 검토에 참여해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SSA 판매부문에서는 탄탄한 판매망과 판매 인력을 바탕으로 신규 설비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위주 경영으로 지속 성장 이룰 것

이제까지 미국 현지에서 해외 철강 기업이 40년간 법인을 운영한 예가 없었습니다. SSA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내실 위주의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해외 생활을 해보니 고국과 가족의 소중함이 새삼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아 가족 모두 올해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모두의 힘’이 가장 큰 경쟁력

세아베스틸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 TF팀

긴급재난문자 메시지가 요란한 경보음으로 ‘한파’를 알리던 날,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오뉴월 훈풍 같은 기운을 내뿜으며 환하게 미소짓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철 스크랩 투입 비용 절감을 이끌어낸 사람들,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에 빛나는 12인의 세아인을 만났다.

비용 절감 위해 뭉친 12명의 드림팀

2016년 12월, 구매1팀의 송강 부장, 임대성 차장과 김광수 대리, 제강팀 김기현 부장, 박준석 부장과 박병희 과장, 기획팀 정현기 차장과 김창현 대리, 자재관리팀 이영주 부장과 김주한 과장, 품질보증팀 이재만 차장과 김성용 차장이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철 스크랩 구입 MIX 최적화를 통한 투입 비용 절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지난해 6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조원가 절감을 이끌어냈다. 그 공로를 인정받으며 올 연초 신년회의에서는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도 수상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여 이뤄낸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김광수 대리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김창현 대리도 ‘고마운 사람을 딱 한 사람만 꼽기 어렵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준 세아베스틸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한다.

철 스크랩은 쉽게 말하자면 고철이다.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형태도 크기도 제각각. 철강 제품을 만드는 주 재료 중 하나로, ‘생산 현장에 철 스크랩을 얼마나 적절히 투입하는가’는 생산 원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철 스크랩 비용은 세아베스틸 전체 생산 비용에서도 40%나 차지하고 있어,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12인의 프로젝트 팀원들도 그래서 모였다. 기획-구매-자재관리-수입검사-제강 부문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 구축

철 스크랩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물량의 변동 및 환율, 각종 경기 지표에 따라 철 스크랩 가격은 크게 오르내린다. TF팀은 이렇게 다양한 가격 변동 요인들의 과거 패턴과 그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관계식을 도출해냈다.

“이달 시장의 변화된 값을 입력하면 다음달 철 스크랩의 단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됐죠. 수학적 모델 도입으로 철 스크랩 구매/재고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송강 부장이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철 스크랩 가격의 거시적 흐름에 따라 연 단위로 투입 믹스 계획을 수립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TF팀 구성 이후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스크랩 가격을 감안하여 월 단위로 투입 MIX를 산출하게 됐다.

부서별 강점 살린 최상의 팀워크

“밥을 지을 때, 햅쌀로 짓느냐 묵은쌀로 짓느냐에 따라 물의 양을 달리해야 하듯, 어떤 스크랩을 얼마나 사용하는가가 조업 실적이나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스크랩 믹스를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각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강팀 박병희 과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가 하면 자재관리팀 이영주 부장은 ‘자재관리는 포수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투수 역할을 하는 구매팀에서 회사의 이익이 되는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구매-생산의 가교 역할에 집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

품질보증팀에서는 더 철저한 수입검사를 통해 품질이 좋은 철 스크랩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철 스크랩 수입품의 품질이 높아졌고, 해당 스크랩 품목의 가공에 사용하던 절단 설비 가동에 여유가 생겼다. 기존 인력으로 산소 절단하던 다른 철 스크랩 품목을 이 설비에서 가공하게 되면서 생철 가공량이 증대했고, 여기서도 상당한 비용이 절감됐다.

한편 기획팀은 각기 다른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 듯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조율했다. 이렇게 각 팀의 강점이 모여 최상의 팀워크가 이루어졌다.



전체의 최적화 향한 업무 패러다임 전환

이재만 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의 성공 스토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김성용 차장도 프로젝트 성공 비결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답한다.

부서의 업무 성격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게 마련일 터. 어떤 팀에는 득이 되지만, 어떤 팀에는 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부분의 최적화가 아닌 전체의 최적화를 위해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다.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부서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차츰 더 긴밀한 협업 체계가 갖춰졌다.

구매팀의 임대성 차장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팀 간의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정량화와 가격 변동 예측이 어려운 철 스크랩의 비용 절감을 이뤄낸 데에는 이렇듯 전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믿음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팀원 모두가 입을 모은다.

‘함께’라는 이름의 혁신

“올해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부서의 능력이 아닌 전 부서가 힘을 모아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현기 차장은 이렇게 말하며 경영관리 부서의 책임자로서 전 부서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화반죽’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한다.

아직 더 고도화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시장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자 계획이다. 물론 주어진 과제가 마냥 쉬울 리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 있고,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풀어갈 동료들이 있다.

“혁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업무 패러다임이 바로 혁신이죠.” 김주환 과장의 말처럼, 이러한 혁신의 바람이 그들 전체로 퍼져 세아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한 포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30년 베테랑의 자신감

세아창원특수강 2제강팀 한정철 주임

자신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온 장인들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도전해나가고 있을까?

2018년 <세아가족>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오랜 세월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각 현장의 명인, 명장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순서로 세아창원특수강 2제강팀의
한정철 주임을 만나본다.



열아홉 청년에서 마흔아홉 장년으로

1988년, 고등학교 실습생 신분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그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청년이었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바뀐다는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세상물정 모르던 순진한 청년의 얼굴은

어느새 믿음직한 장년의 표정을 띠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시기였습니다.

돈을 벌어서 최대한 빨리 자립하고,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던 시절이었죠.”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한정철 주임이 말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입사한 그에게 당시 4~50대 선배들은

그야말로 ‘동네 큰 어른’처럼 여겨졌다.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는 한정철 주임,

이제 그가 그 당시 선배들의 나이가 되었다.

“되도록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같이 볼링이나 당구도 치고, 대화도 많이 나누죠.”

현장을 돌보고 살피는 엄마 역할

제1제강공장 15톤 정련파트에 배속되어 일하던 그는
입사 2년 후,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후 그의 선택은

다시 삼미특수강(현 세아창원특수강)이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 다시 회사로 복귀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회사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당시부터 우리 회사는 국내 특수강 소재
산업분야에서 선두 기업이었으니까요.”

이후 그는 2제강 정련 설비 담당을 거쳐,
2006년에는 스테인리스 생산 설비의 시운전
팀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첫 번째 스테인리스 제품이 출강하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설비를 들여놓고 수차례 테스트를 거치며
작업표준 등 각종 조업 패턴을 수립하는 일은
고된 과정이었죠. 하지만 첫 제품의 출강을 보자
그간의 고생이 한 순간에 잊혀지더군요.”



오래 입어 낡고 헤진 작업복처럼,
현장이 익숙해진 그이지만 아직도 일에 대한
열정만은 열아홉 청년의 마음 그대로다.



당시 조업 패턴 수립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제강주임으로 발탁됐다.
2014년부터 그는 소형생산담당 2제강팀에서
기술주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술주임이란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
조업 스케줄을 관리하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 작업자들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며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일이 그의 업무다.
“되도록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언이나 충고가
잔소리로 여겨질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그치지 않고 응원하는 것이 선배의 역할’이라고 덧붙인다.

열정만은 여전히 청년의 마음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주위 동료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길에 업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출근할 때는 오늘은 어떻게 해야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퇴근 후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반성하고 고민합니다.”

그만의 특별한 업무 비결을 묻자 한 주임은 이렇게 답한다.

오래 입어 낡고 헤진 작업복이 몸에 가장 잘 맞는 것처럼,
그의 모습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이제 현장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다.

자못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그러나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꼼꼼하고 세심한 눈길로 현장을 살피는 그의 자신감.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와 함께 지난 30년 세월이

그에게 준 선물이다.





짙붉은 꽃송이의 향연에
몸을 녹이네
전남 여수

강추위도 거뜰히 이겨낼 새 힘이 필요한 그대여,
전라남도 여수로 가자.
세아 M&S 여수공장이 위치해 있는 여수는
사계절 언제 가도 좋지만 겨울에 가면 더욱 좋다.
한겨울부터 봄으로 넘어가는 즈음,
동백꽃들이 천지를 찬란하게 물들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백나무 군락지, 오동도



한결 가까워진 여수 밤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항으로 손꼽히는 전라남도 여수는 그 빼어난 여행지로서의 가치에 비해 크게 붐비는 곳은 아니다. 일단 너무 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편이 한결 좋아져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면 갈 수 있고, KTX를 타면 2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특히 가수 버스커버 스커가 '여수 밤바다'를 노래하면서 여수는 밤바다, 낭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가 되었다. 꼭 야경이 아니어도 360개의 보석 같은 섬들, 917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자아내는 풍경이 유독 포근하게 다가온다. 겨울에도 비교적 날씨가 온화해 잠시 추위를 피하기에도 좋다.

숨이 막힐 듯 아름다운 동백꽃 천지

먼저 4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백나무 군락지, 오동도로 향한다. 동백꽃은 대개 1월 중순경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해 3월에 만개하는데, 이맘때면 온 천지를 붉게 수놓는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동백꽃은 피어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4월경 꽃송이채 후두두 떨어져 마치 레드카펫처럼 바닥에 깔리는 풍경 또한 장관이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다 퇴색되는 여느 꽃들과 달리 동백꽃은 꽃이 가장 싱그럽게 피어있을 때 미련 없이 낙화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있는 순간 스스로 제 목을 치듯 떨어지는 그 단호함과 처연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연이 선사한 낭만과 여유

여수 여행에서 또 하나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전망을 즐길 수 있다. 5대 중 1대 꼴로 바닥이 투명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스릴감을 선사한다. 특히 해 질 녘에 타면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의 낭만적인 정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무슬포 해안이 좋다. 이곳은 몽돌해변으로 유명한데, 파도가 몽돌에 부딪혀 썩-아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매력이다. 청정 그 자체인 여수의 공기를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귀로는 몽돌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새해를 힘차게 살아

갈 에너지가 불끈 차오른다. 이밖에도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이라면 전라선 기차가 다니던 철길을 활용해 만든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흰고래 벨루가를 비롯해 세계적인 해양식물과 눈 맞출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 여수, 쪽빛 남해바다의 비경을 바라보며 금오도 비렁길을 트레킹하는 코스도 좋다.

사계절 내내 입이 즐거운 고장

온갖 종류의 싱싱한 해산물과 생선이 잡혀오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 미식가들이 행복한 삼시 세끼를 즐기는 곳이 바로 여수다.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는 해물삼합, 먹음수룩 당기는 간장게장, 채소 육수에 살짝 데쳐먹는 새조개 샤브샤브 등

배 꺼지는 순간을 기다리게 될 만큼 훌륭한 먹거리들이 즐비하다. 특히 여수는 포장마차에서도 상당히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온갖 산해진미가 총출동하는 '낭만포차'도 꼭 한번 둘러보자.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여수는 당신의 겨울에 모처럼 포근하고 로맨틱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SeAH in YEosu

세아 M&S 여수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188
061-807-7114

새해를 맞는 마음도 가지런히 다도체험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최환근 팀장 가족



우리나라는 예부터 차에 대한 애정이 높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따뜻하게 우려낸 차 대신 커피가 한국인들의 식후 음료로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전통의 귀환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시 차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
최환근 팀장 가족이 다도체험에 나섰다.

커피와는 또 다른 매력의 차(茶)

차밭, 녹차, 다기(茶器). 이런 단어들을 적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진다. 차는 그런 것이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훈훈하게 데워지고, 황량했던 마음이 축축해지는 그런 존재. 더욱이 정다운 이들과 함께하는 차 모임이라면, 그 순간의 따뜻함은 제 아무리 동장군(冬將軍)이 횡포를 부린다고 한들 끄떡없을 것만 같다.

“최근 헛개차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와는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차를 우려내는 올바른 방법이나 차 예절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환근 팀장이 이날 체험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환근 팀장과 아내 손현 씨, 여덟 살 현준이와 여섯 살 막내 윤후까지, 다도에 어울리는 차림을 위해 가족 모두 오랜만에 한복을 입었다.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을 차려 입으니 오늘 하루가 벌써부터 특별해지는 기분이다.

큰아들 현준이의 한복은 저고리 소매도, 바지 길어도 어느새 강릉하게 짧아졌다. 작년에 사준 옷이 작아진 만큼, 아이도 훌쩍 성장했다는 뜻일 것이다.

10년 차 부부와 개구쟁이 형제

“우리 아빠는 키도 크고 멋지고 힘이 세요. 우리 둘을 동시에 안을 수 있고, 커다란 장난감 상자도 들 수 있어요.”

두 아이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아빠는 슈퍼맨과 거의 동급이다. 바다를 좋아하는 현준이에게 넓은 바다 풍경을 선물해주는 아빠, 숨바꼭질도 함께하고 장기 상대도 되어주는 다정 다감한 아빠. 그런 아빠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도 지극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물을 정도예요.”





엄마도 부자간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손현 씨에게도 최환근 팀장은 '대들보'같은 존재다. 친구 소개로 만나 올해로 꼭 결혼 10년 차가 됐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호감이나 신혼 초의 감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여전히 아내에게 남편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전할 것 같다'는 편안함과 믿음을 선사해주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최환근 팀장은 '꼼꼼하고 이해심이 넓은 아내'를 자랑한다. 책을 늘 가까이하는 아내 덕에 아이들도 독서 습관을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었다. 모험심이 강하고 장난기 많은 현준이와 그런 형을 똑같이 따라하는 윤후,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까지 야무지게 해내는 이 집안의 '대장'이다.

몸도 마음도 다소곳이

오늘 다도체험은 '찾자리' 체험이라고 하여, 차를 함께 마시는 예절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차의 종류는 흔히 마시는 잎차 대신, 말차(抹茶) 가루가 준비됐다. 말차는 시루에서 찌낸 찻잎을 말린 후 맷돌에 곱게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들어 이를 물에 타 음용하는 차를 말한다.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려 마시는 잎차에 비해 찻잎을 통째로 먹는 말차는 맛이 더욱 진하며, 물에 우려지지 않는 차의 유일한 성분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차를 마실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며, 차를 건네받을 때와 차를 마신 후에는 차를 내어준 사람에게 상체를 숙여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왼 손바닥 위에 찻잔을 뜻하는 다완을 올려두고 오른손으로 감싸듯 잡는다. 다완은 다 마실 때까지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3~5모금에 나누어 차를 마신다.

찾자리 체험은 한과가 함께 제공된다. 씩씩한 맛의 차를 마신 후 과자를 한입 베어 물어 입 안에서 어우러지게 하는 것. 달달한 한과와 말차의 따뜻하고 깊은 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아직 어려서 말차가 그저 쓰게 느껴지는 윤후는 일찌감치 제 앞의 과자를 모두 먹고, 엄마 뒤편의 한과를 다시 나눠 받는다.



차를 담아놓는 항아리 모양의 그릇을 뜻하는 차호, 차를 꺼낼 때 사용하는 수저인 차시, 다도용 천 수건 차건, 찻잎 가루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 용도의 차선 등 각종 다구(茶具)의 이름과 쓰임새도 배워본다. 익숙하지 않은,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체험을 현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탐구한다.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차를 모두 마시면 다구를 정리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가 다도의 예. 공손히 손을 모으고 인사하며 오늘 체험을 마무리한다.

이후 가족은 학아재미술관 맞은편에 위치한 창경궁 나들이에 나섰다. 싱싱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현준이와 윤후는 궁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아이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배우며, 꿈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눈길로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바람. 손현 씨도 '세상의 흐름을 읽어서 설명해주고, 끊임없는 질문에 함께 고민하며 답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싱싱한 날씨 탓에 불이 밝게해진 현준이와 윤후, 두 아이에게 이 세상의 쓴맛은 말차의 맛이 전부이길. 올해 겨울엔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산타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탱크 조종사가 되고픈 윤후의 멋진 꿈도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척추를 바로 잡아야 건강이 보인다

허리 운동

바쁜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제대로 건강을 돌보기 어렵죠. 하지만 체력은 곧 국력이요, 임직원의 건강이 곧 회사의 경쟁력! 더욱 건강한 2018년을 위해 세아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호 주제는 '허리'입니다.

허리디스크란?

척추 뼈 사이에는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추간판이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척추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지 않으면 몸속 장기들의 손상으로 심폐,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우울증 및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척추를 바로 세우는 허리(척추기립근)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업무를 반복하시는 분
- ☑ 종일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하시는 분
- ☑ 퇴근 후 잠들 때 똑바로 누워있기가 힘든 분
- ☑ 자주 소화불량을 느끼시는 분
- ☑ 자주 허리 통증을 느끼거나 다리 저림 증상을 겪는 분

이흥표 매니저는 운동처방 1급,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2급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로 전국체전 복싱 종목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1997년 춘계전국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60kg급 3위, 2000년 YMCA 보디빌딩대회 -65kg급 2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세아인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 드립니다.

MARJARYASAN 척추의 S자 굴곡 유지를 도와주는 고양이 자세



- ① 기어가는 자세에서 두 손과 두 무릎을 각각 어깨너비만큼 벌립니다.
- ② 숨을 들이키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허리를 움푹하게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 ③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는 동시에 허리를 천장 쪽으로 둥글게 끌어올립니다. 호흡을 정리하며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GOOD MORNING 탄력 있는 등 근육을 만들어주는 굿모닝 자세



- ①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앞쪽에 모아줍니다.
- ② 인사하듯 천천히 허리를 90도 정도로 굽혀줍니다.
- ③ 허리의 힘으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BRIDGE 뭉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브릿지 자세



- ① 누운 상태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웁니다.
- ②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린 후 엉덩이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1~2초간 정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 ③ 숨을 들이키면서 골반을 바닥에 내려줍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세아베스틸



2017년 정년퇴임식

12월 20일, 30년간 몸담았던 정든 회사를 떠나는 정년 퇴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윤기수 대표이사는 “그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직원들의 노고와 물심양면으로 내조해주신 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퇴직자 분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세아창원특수강



신년 안전기원제 개최

1월 2일, 세아창원특수강은 새해를 맞이하여 노사가 한마음으로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지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지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노동조합, 임원진, 협력회사 사장단, 직책 보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하여 세아창원특수강의 무탈한 한 해를 기원하였으며,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 목표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자는 소망의 뜻을 모았다.

세아특수강



사랑의 쌀, 연탄 나눔 행사 시행

12월 22일, 충주공장 임직원은 소외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쌀,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아특수강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기탁된 물품은 충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여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세아씨엠



2018년 고객사 신년인사회

1월 5일, 세아씨엠 임직원들과 고객사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세아씨엠은 신년 인사와 함께 고객들을 위한 올해 경제 전망 및 시장 동향, 회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년도 기준 우수 고객사를 선정하여 감사의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한신칼라스틸이 올해의 우수 고객사로 선정되었다.

세아메탈



사랑의 나눔 라면 기탁

12월 20일, 세아메탈 원주공장 임직원 일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 지역 내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라면’ 120박스(280만 원 상당)를 문막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와 함께 세아메탈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AH Steel USA



Business of the year 2017 수상

SeAH Steel USA가 Chamber of commerce(North channel area)에서 수상하는 ‘Business of the year 2017’을 수상하였다. 본 시상에서 SeAH Steel USA는 Oil & Gas 시장이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자산을 차례로 인수 및 통합하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정비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사우동정

세아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 ESAB
입사 권 샘 생산계획팀	결혼 신재윤 대형압연팀 최성건 강관단조설비팀	출산 차경호 시험실 김도영 품질경영팀
결혼 박승호 업무지원팀	출산 김성우 영업1팀 박동훈 소형압연팀 김형신 제품연구2그룹	조의 고덕욱 생산팀(빙부)
출산 김태현 업무지원팀 염준식 회계팀 김영훈 품질경영팀 김웅열 생산2팀	조의 김승득 재경팀(부친) 김정환 3제강팀(모친) 이광현 소형압연팀(빙부)	세아메탈
세아베스틸		
결혼 윤석재 제강팀 윤정진 지원팀 이영근 I-프로젝트팀 임성복 연주팀	세아특수강	입사 고병준 수출팀 서예지 수출팀 우창훈 서울영업팀 김영재 품질경영팀
조의 김홍철 단조설비팀(부친) 옥윤범 품질보증2팀(부친) 정현구 제강설비팀(부친) 김승득 재경팀(부친) 홍성원 제감담당(부친) 안용석 소형압연팀(모친) 최성복 품질보증2팀(모친) 김옥섭 압연설비팀(모친) 임종호 제강팀(빙부) 한정훈 대형압연팀(빙부) 정규완 소형압연팀(빙부) 류인명 품질보증2팀(빙부) 김동수 압연설비팀(빙부) 문영운 압연설비팀(빙모) 김용현 품질보증1팀(빙모) 손용순 생산관리팀(빙모) 송기정 연주팀(빙모)	출산 문성진 생산팀	조의 박도훈 상무(모친)
	조의 김범신 생산팀(부친) 김현석 경영지원팀(빙모)	세아 L&S
	세아씨엠	입사 이재훈 강관영업1팀 백지연 강관영업2팀 주을중 재경기획팀
	결혼 진 울 생산팀	조의 박상호 부산영업팀(부친)
	출산 이진성 가전영업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강희전 생산팀 윤성욱 생산팀 박수정 생산팀
		결혼 정광양 서비스팀

독자엽서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독자 의견에 선정되신 분께는 새해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세아인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폼롤러를 선물해드립니다.



테마 초대석을 보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동료
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각 다
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아인들이 지내는 이야기도 듣고,
세아의 좋은 소식도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윤용기



세아타워 근무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 서로 소통하며 배우는
과정을 담은 '세아는 지금' 코너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세아가
족> 사보의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경기 평택시 독고동 정다솜



항상 좋은 소식과 알찬 내용이 담긴 사보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아름다운 나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포항시 남구 해동로 이경은



해피패밀리 코너를 보며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
다.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계
속 생각났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여항면 안창호

<세아가족> 사보기자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창원)	장영원	세아 ESAB 영업팀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군산)	신상호	세아메탈 경영기획팀(서울)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김재현	세아씨엠 경영관리팀(군산)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부산)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황미라	세아제강 부산영업1팀(부산)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포항)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이다은	세아베스틸 기획팀(서울)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대전)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서미성	세아 FS 인사기획팀(서울)	이상기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포항)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창원)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박솔향	세아네트웍스 인사총무팀(서울)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 02-6970-0093